

# APT WTSA-20 준비그룹 국제회의 동향 (2020년 11월)

이종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표준화본부 선임연구원



## 1. 머리말

APT(Asia-Pacific Telecommunity)는 아시아-태평양 지역국가 간 ICT 표준화 분야 상호 협력기구로, 매 4년마다 개최되는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WTSA, World Telecommunication Standard Assembly)에 아·태 지역 국가들의 공동기고서를 제출하고 관련 사안에 대응하기 위해 산하에 WTSA 준비그룹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APT는 2019년부터 WTSA-20 준비그룹을 구성하여, 원래 2020년 11월 개최 예정이었으나 COVID-19 사태로 2022년 3월로 연기된 WTSA-20에 대한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해 왔다. 본고에서는 2020년 11월 개최된 제4차 국제회의의 주요내용 및 결과를 공유한다.

2020년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전화회의로 개최된 이번 APT WTSA-20 준비그룹 국제회의에는 약 30여 개 국가 및 섹터회원 등 총 205명이 참석했으며, 한국에서는 15명의 국가대표단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WTSA-20이 2022년

으로 연기가 최종 결정되기 전 계획을 기준으로 본 그룹의 최종 회의였으며, 이에 따라 ITU-T 연구반 구조조정, 작업방법 등 주요 결의 및 권고 제·개정 등 WTSA의 주요 이슈에 대한 APT 지역 최종 입장을 조율하고 공동기고서(ACP, APT Common Proposal)를 제출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 2. 주요 회의 내용

### 2.1 연구반 구조조정

우리나라는 지난 제2차 APT WTSA-20 준비그룹 회의(2020년 5월) 및 ITU-T 자문그룹(TSAG) 국제회의(2020년 9월)를 통해 [그림 1]과 같이 현재 11개로 구성된 ITU-T의 연구반의 구조조정에 대한 입장을 <표 1>과 같이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 러시아, 중동 및 아프리카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번 WTSA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표면적인 이유는 COVID-19 사



[그림 1] 현재의 ITU-T 구조

태로 WTSA가 2020년에서 2021년으로, 다시 2021년에서 2022년으로 연기되는 등 WTSA 일정이 불확실하고 2022년 WTSA부터 시작될 차기 회기(2022년 3월~2024년)의 기간도 기존에 비해 짧아졌을뿐 아니라, 현재 공정하고 명확한

구조조정 논의를 위한 활동통계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WTSA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을 수행하지 않고 2024년까지 사전 활동통계분석 작업 후, WTSA-24에서 대규모 구조조정 필요성 및 방안을 재논의하는 것이

<표 1> 우리나라가 제안한 구조조정안

병합 연구반	현재 연구반/WP	현재 그룹명
SG I	SG2	Operational aspects
	SG3	Tariff and accounting principles and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ICT economic and policy issues
SG II	SG5 / WP1	EMC, lightning protection, EMF
	SG5 / WP2 (except SC&C matters)	Environment, Energy Efficiency and the Circular Economy
SG III	SG5 / SC&C matters	Smart Cities & Communities application areas
	SG20	Internet of things(IoT) and smart cities and communities(SC&C)
	SG16 / WP2	Multimedia e-services
SG IV	SG16 / WP1	Multimedia content delivery
	SG16 / WP3	Media coding and immersive environment
	SG9	Broadband cable and TV
SG V	SG11	Signalling requirements, protocols, test specifications and combating counterfeit products
	SG13	Future networks, with focus on IMT-2020, cloud computing and trusted network infrastructures
SG VI	SG12	Performance, QoS and QoE
SG VII	SG15	Transport, Access and Home
SG VIII	SG17	Security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물론 구조조정 대상으로 지목된 연구반에서 자국 전문가의 의장단직을 유지함으로써 해당 기술분야 표준화에 대해 주도권을 보존하려는 내재적인 사유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또한 국내 대응위원회(한국ITU연구위원회 WTSA-20 대응준비반)를 통해 WTSA-20에서의 구조조정 여부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했으며, 최종적으로 특정 의견 표명을 유보하기로 하여 이번 회의에서는 중립적 기조로 대응했다. 결국 일본에서 현 SG20(IoT 및 스마트시티) Q.6(Security, privacy, trust and identification for IoT and SC&C)의 IoT-ID 관련 이슈를 SG2로, 정보보호 관련 이슈를 SG17로 이관하는 비교적 소규모 구조조정안을 내 합의에 이르렀으며, 이를 차기 TSAG(ITU-T 자문그룹) 국제회의에 APT 의견(APT View) 형태로 전달하기로 하고 관련 공동기고서(ACP)를 WTSA-20에 제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본고에서 APT 공동기고서(ACP) 제출에 ‘잠정 합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최종 회원국 회람 절차(2021년 10월 이후 예정)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미 수차례 회의를 통해 논의되고 합의된 결과이므로 회람 단계에서 부결될 가능성은 낮지만, 그러함에도 ‘최종 확정’이 아닌 ‘잠정 합의’ 용어를 사용한다.

## 2.2 WTSA 결의 및 A시리즈 권고 제·개정

### 2.2.1 글로벌 팬데믹 신규 결의 제안

우리나라는 지난 제2차 국제회의(2020년 5월)부터 COVID-19처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글로벌 팬데믹 확산을 막는 데 ITU-T가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APT 지역 내 합의를 토대로 WTSA 신규 결의의 APT 공동기고서 제출을 제안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일본, 호주 등이 결의 내 세부 수행내용에 대한 수정을 제안하여 이를 논의한 끝에 공동기고서 최종안에 잠정 합의했다.

### 2.2.2 AI 기술을 활용한 ITU-T 표준화 활동 강화 신규결의 제안

우리나라는 또한 AI 기술을 ITU-T 내 다양한 도메인별 표준화에 적용하여, ITU-T 표준 품질을 고도화하는 내용의 신규 결의를 제안했다. AI 기술 자체에 대한 표준화를 목표로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지난 제3차 회의(2020년 7월)까지 APT 지역 내 공동기고서 제출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이번 회의에서 일본, 호주가 결의안 목적의 모호성, 당위성 부족 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반대하여, 공동기고서 최종안 잠정 합의가 최종적으로 무산되었다.

### 2.2.3 우리나라 외 타국의 신규결의 제안

우리나라가 제안한 두 건의 신규과제를 제외하고도 중국 및 인도에서 총 네 건의 신규결의가 제안되었으나, 마찬가지로 일본, 호주가 신규결의 필요성에 대해 반대하여 최종적으로 공동기고서안 잠정 합의가 모두 무산되었다.

### 2.2.4 ITU-T 작업방법 관련(결의 1 및 A 시리즈 권고) 개정 제안

ITU-T 표준화 작업방법은 WTSA 결의 1(ITU-T의 절차에 관한 규정) 및 A시리즈 권고를 통해 정의하는데, 이에 대한 개정 제안 논의가 진행됐다. A시리즈 권고는 소관 그룹이 ITU-T 자문그룹(TSAG)이므로 APT 공동의견(APT View) 형태로 제출되고, 결의 1의 경우는 WTSA 결의이므로

<표 2>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신규 결의 내역 및 논의 결과

결의 제목	제안국가	주요 내용	논의 결과
글로벌 팬데믹 확산 방지를 위한 ICT 활용 촉진에 있어서의 ITU-T의 역할	한국	팬데믹 대응에 대한 회원국의 ICT 활용 모범 사례를 수집·분석하고, 관련 ITU-T 표준화 니즈를 파악하는 등, 팬데믹 상황에서 ITU-T의 역할을 확인 및 수행, 이를 위한 작업그룹 신설	<b>기고서 잠정 합의 승인</b> 일본: 표준화 우선순위의 순서화 및 해당 작업을 수행한 작업그룹(Work Group)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이메일 논의를 통해 필요성을 설득하여 반영됨 용어를 Work Group→Working Group으로 변경
AI 기술을 활용한 ITU-T 표준화 활동 강화	한국	우수한 품질의 ITU-T 표준을 제정, 산업체에 제공할 수 있도록 ITU-T 표준 문서 개발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 또한 정보 공유, 상호 협력을 위한 JCA 설립	<b>기고서 잠정 합의 미승인</b> 일본/호주: 다양한 ICT 융합기술 중 AI만 특정하여 결의 제정 필요성 없으며, 결의는 개정 후 최소 4 년동안 유지되는데, 그동안 AI 표준화 중요성 지속 불명확 중국: 신규 결의 제정을 지지하고, 연구반별 AI 관련 기술의 표준화 추진 문구를 삽입 제안
양자정보기술 표준화 활동 강화	중국	양자정보기술 관련 SG13, 17 및 FG QIT4N의 연구를 소개하고, 향후 표준화 분야의 확장을 위해 SG11, 15 등에서 참여할 것을 제안	<b>기고서 잠정 합의 미승인</b> 일본/호주: 현재 포커스그룹에서 표준화 사전 논의가 진행 중이며, 해당 논의 결과에 따라 연구반별 관련 표준화 아이템 및 이슈가 할당될 예정임. 이에 따라 FG 활동 종료 전 신규결의를 제정하는 것은 시기상조임
머신 비전 표준화 활동 강화	중국	SG16을 중심으로 SG11, SG17, SG20 등의 머신 비전 관련 표준화 활동을 강화할 것을 제안	<b>기고서 잠정 합의 미승인</b> 합의 도출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WG 의장의 제안으로 별도의 논의 없이 미승인 결정
버тикаль 응용 지원을 위한 미래 네트워크 진화에 대한 ITU-T의 연구 및 표준화 강화	중국	SG11, SG13을 중심으로 미래 네트워크 기술 관련 표준화 활동을 강화할 것을 제안	<b>기고서 잠정 합의 미승인</b> 일본/호주: New-IP 이슈는 SG11, SG13에서 표준화 필요성 합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APT 공동기고서 제출은 어려움
동등한 AI/ML 네트워크를 위한 액세스 자원 공유	인도	AI/ML 데이터에 대한 전 세계적 공유를 위한 플랫폼 개발 및 자원 공유, 상호운용성 확보 등 제안	<b>기고서 잠정 합의 미승인</b> 일본/호주: 세계적으로 AI/ML 네트워크 플랫폼의 접근 권한을 정하는 등의 활동은 ITU-T의 논의 범위를 넘어서므로 본 결의안에 반대

<표 3> ITU-T 작업방법 관련 개정 논의 결과

번호	제목	제안국가	주요 내용	논의 결과
결의1	ITU-T의 절차에 관한 규정	중국 일본	A.13의 비규범문서 종류별 정의/승인기준 등을 결의 1에 명시, 결의 35(ITU-T 의장/부의장 임명 및 최대임기) 폐지에 따른 관련 내용 추가, 연구반 의장단의 중립성 의무 추가	<b>기고서 잠정 합의 승인</b> 일본/호주: 승인절차(AAP→TAP)의 변경 불가능 문구를 제외 요청하여 반영됨
A.1	ITU-T 연구반 작업방법	중국	라포처 임명 필요시 SG 매니지먼트팀이 Q 이메일리스트를 통해 사전 공지하고, 원격회의 개최 시 보통 최소 2주전 개최 공지 내용 추가 등	<b>APT View 승인</b> 일본/호주: 라포처를 공개적 방법으로 모집/후보자를 공지하는 등의 내용을 삭제 요청하여 단순 이메일리스트 안내로 완화 반영됨.
A.7	포커스그룹: 작업 방법 및 절차	중국	산하 작업그룹 규정 추가, 발간물(Deliverable) 예시 추가	<b>APT View 승인</b> 일본/호주: 모그룹에서 FG 발간물에 대한 처리 방안을 명시하는 내용은, FG 관련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반영됨
A.8	신규 및 개정 권고에 대한 대체승인 절차	중국	AAP 승인절차(Last Call) 돌입 후, 승인 절차 재고려하지 않음	<b>APT View 승인</b> 일본/호주: 절차 변경 불가 문구를 완화(Should not→may not) 요청하여 반영됨.

로 APT 공동기고서(ACP) 잠정 합의 여부가 논의됐다.

각 결의 및 권고에 대한 주요 논의 내용과 결과는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lt;표 4&gt; 이번 회의에서 합의된 전체 내역

번호	제목	구분	제안국	번호	제목	구분	제안국
신규	글로벌 팬데믹 확산 방지를 위한 ICT 활용 증진에 대한 ITU-T의 역할	제정	한국	73	정보통신기술, 환경 및 기후 변화	개정	인도
1	ITU-T의 절차에 관한 규정	개정	중국 일본	76	적합성 및 상호운용성 시험,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및 가능한 미래의 ITU 마크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개정	인도
2	ITU-T 연구반의 책임과 의무	개정	일본 중국	77	ITU-T의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킹 표준화 작업 강화	개정	중국
18	ITU 전파통신, 전기통신 표준화 및 전기통신개발 부문간 조정과 협력 강화 및 작업 활동 원칙과 절차	개정	인도	78	e-건강 서비스 접근 개선을 위한 ICT 애플리케이션과 표준	개정	인도
22	TSAG의 WTSAG (연구회) 집행 권한	개정	일본	79	전기통신 및 정보기술 장비에서 배출되는 e-폐기물을 취급 및 통제하는 전기통신/ICT의 역할과 이를 처리하는 방식	개정	인도
32	ITU-T 활동을 위한 전자적 작업 방법의 강화	개정	일본	84	전기통신/ICT 서비스의 사용자 보호 관련 연구	개정	말레이시아
35	ITU-T 연구반 및 TSAG 의장과 부의장의 임명과 최대 임기	폐지	일본	88	국제모바일로밍	개정	인도
45	ITU-T 연구반 간의 표준화 활동의 효과적 조정과 TSAG의 역할	폐지	일본	89	금융포용격차 해소를 위한 ICT 활용 증진	개정	한국
50	사이버 보안	개정	한국	92	국제 이동 통신의 유선 측면 관련 ITU-T 표준화 활동 강화	개정	중국
52	스팸의 대처와 방지	개정	중국	95	서비스품질 관련 우수 사례 및 정책 인식 증대를 위한 ITU-T 이니셔티브	개정	베트남
55	ITU-T 활동에서의 양성평등 촉진	개정	한국	96	정보통신/ICT 기기의 위조 대응을 위한 ITU-T의 연구	개정	중국
58	개발도상국을 위한 국가 컴퓨터 침해사고 대응팀 설립의 장려	개정	인도	97	이동통신 기기 도난 대응	개정	중국
60	ID/번호 배정 시스템의 발전과 번호/ID 배정 시스템의 IP 기반 시스템/망과의 융합에서 발생하는 도전에 대한 대응	개정	중국	98	글로벌 개발을 위한 IoT, 스마트시티와 커뮤니티 표준화 증진	개정	중국
64	IP 주소 할당과 IPv6 전환 및 보급 촉진	개정	베트남	A.1	ITU-T 연구반 작업방법	개정	중국
67	동등한 지위에서의 ITU-T 언어사용	개정	중국	A.7	포커스그룹: 작업 방법 및 절차	개정	중국
72	전자기장에 대한 인체노출과 관련된 측정 및 평가 문제	개정	인도	A.8	신규 및 개정 권고에 대한 대체승인 절차	개정	중국

## 2.2.5 그 외 기존 결의에 대한 개정 제안

앞서 언급한 신규 결의 제안, 작업방법 관련 결의 및 권고 개정 제안을 제외하고도 기존 WTSAG-20 결의 개정이 다양하게 논의됐다. 회의 결과 우리나라가 제안한 글로벌 팬데믹 관련 신규 결의 1건, 총 60개의 기존 결의 중 개정 제안 26건, 폐지 제안 2건 등 총 29건의 WTSAG 결의 관련 APT 공동기고서 제안안이 잠정 합의되었다. <표 4>는 이번 회의에서 잠정 합의된 29건의 APT 공동기고서 제안안 및 위 2.2.4절에서 언급

한 3건의 A시리즈 권고 개정안을 포함한 총 32건의 결의 및 권고 개정 제안 전체 내역이다.

## 3. 맺음말

이번 회의를 마지막으로 2022년 3월 개최 예정인 WTSAG-20의 아·태지역 공동협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 다만 예상치 못하게 1년의 시간적 여유가 생겨, 2021년 10월 APT WTSAG-20 준비그룹 추가회의를 개최하고, 공동기고서 제

출 논의를 제외한 WTSA 주요 이슈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차기 ITU-T 활동회기간 우리나라에 유리한 ICT 국제표준화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TSAG과 본 그룹을 통해 연구반 구조조정, 연구반 의장단 진출, WTSA 결의 제·개정 등 WTSA 주요 이슈에 다각도로 의견을 제시하고, 반영하려 노력해왔다. 이에 대한 결실로 APT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국내 주도 신규 결의가 APT 공동기고서로 WTSA 본회의에 제출될 예정이며, 이를 포함하여 WTSA에서 다양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